

취지문

우리들은 현재의 일본에 말할 수 없는 위기감을 품고 있습니다. 긴장감과 불안정이 도를 더해가는 국제정세와는 정반대로, 전후 체제로부터 벗어나자는 뜻은 흔들리고, 국민의 관심은 오직 당면 문제에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7년 여름의 참의원선거에서는, 헌법개정 등, 국가의 기본적인 문제가 내버려져, 그 결과 국가로서의 중대한 결함을 노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국헌법으로 상징되는 전후 체제는, 이미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겨우 헌법개정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패전의 후유증은 너무나도 심각하여, 이를 극복하는 데는, 지금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인식」 문제는 이웃나라들뿐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과의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교육은, 학력저하나 도덕교육의 상실도 그렇지만, 그 근저가 되어야 할 국가의식의 결여야말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방을 짊어지는 자위대는 「보통 민주주의국가」의 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조건을 빠뜨린 채 우리나라가 지금에 이르고 있는 원인은, 정치가가 식견이 부족하고, 관료기구가 항상 문제해결을 마루는 나쁜 습관을 바꾸지 않고, 그 때만을 모면하기에 시종해 온 데 있습니다. 덧붙여 국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연면하게 이어져온 일본 문명을 자랑으로 삼으며, 또한, 넓은 국제적 시야에서, 일본의 본연의 자세를 재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정세의 큰 변화에게 대응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기능 부전에 빠져들고 있는 일본을 재생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면하는 기본문제를 응시하고 고치자는 관점에서, 국가기본문제연구소(國基研·JINF)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점에서 자유로운 순수 민간연구소로서, 독립 자존의 국가를 구축 하는데 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일본의 참된 바람직한 모습을 되찾고, 21세기 국제사회에 크게 공헌하고자 하는 기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찬동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